

“기쁩니다. 특히 아버지의 예순번째 생신에 맞춰 책을 낼 수 있게 돼 태어나서 처음으로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소설 쓴다는 핑계로 집 안에 염려만 끼쳐드렸죠.”

김종광씨(29)는 자신의 첫 소설집 《경찰서여, 안녕》(문학동네)을 펴낸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1998년 계간 《문학동네》 문예공모를 통해 등단했다. 이번 소설집의 표제작인 〈경찰서여, 안녕〉은 그의 등단작이기도 하다.

‘웃음’의 미학

이번 소설집에 실린 11편의 작품은 문예지에 발표된 작품들이다. 등단 후 근 2년만에 11편의 작품을 문예지에 실었으니, 그만큼 그의 소설이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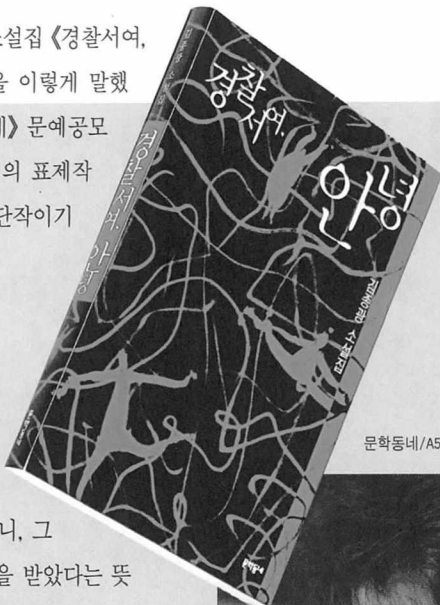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죠. 보잘 것 없는 작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니, 다만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의 소설은 우선 재미있다. 시종일관 웃음이 터진다. 등장인물이 뱉어내는 구수하고 감칠맛 나는 충청도 사투리는 읽는이를 소설 속으로 끌어당긴다. 이런 그의 소설에 대해 현실을 등한시했다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그는 영 마뜩잖은 눈치다.

“슬플 때는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더 슬플 때는 차라리 웃음이 나오죠. 제 소설 역시 마찬가지로. 고통과 아픔을 ‘웃음’으로 슬쩍 덮어둔 거죠.”

이번 소설집에 실린 대부분의 작품들은 그의 체험을 토대로 씌어진 것들이다. 그는 소설의 한 구절대로 ‘대문을 한 번도 막아본 적이 없는 경찰서의 타격대 소속 전투경찰’이었다. 졸업 후에는 소설을 쓴답내 하고 실직자 생활을 하기도 했다. 〈모종하는 사람들〉에 나오는 동해와 〈짚가리, 비룻다〉에 등장하는, “저는 열심히 쓰고 있어요. 곧 한탕 합니다. 뭐라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준남은 등단하기 전 ‘백수건설’이었던 그의 모습이다.

“졸업하고 나서 거의 실업자로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고 ‘노가



문학동네/A5신/352면/8000원



김종광씨

다’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열심히 소설을 썼습니다.”

그의 소설에는 단편임에도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40명 가까이 이르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소설이 번잡하거나 혼란스럽지 않다. 마치 모를 심듯 인물들을 소설이라는 못자리에 촘촘하게 꽂아놓은 탓이다. 인물을 서사적으로 통제하고 엮어나가는 솜씨는 가히 수준급이다.

“개인적이고 특수한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소설입니다. 어떤 한 상황을 두고 많은 인물을 등장시키면 그만큼 그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쩌면 희곡에 대한 그의 관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는 올해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해로가〉가 당선돼 극작가로 정식 데뷔하기도 했다.

“지금의 소설이라는 형식은 불과 1세기 안에

해학정신 돋보이는 ‘제2의 이문구’

《경찰서여, 안녕》 펴낸 김종광씨

김종광씨의 첫 창작집 《경찰서여, 안녕》은 우리 시대의 농촌 풍경을 유쾌하고도 해학적으로 그린 작품집이다.

작가 특유의 걸쭉한 입담과 단단한 서사구조, 작가적 체험이 절묘하게 일치하고 있는 이 소설집은 근래의 젊은 작가에게서는 찾아보기 드문 소설적 성취를 이루고 있다.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장르는 머지 않아 또 다른 형태로 그 모습을 바꿀 것입니다. 앞으로 기존의 소설과 희곡을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나는 예술하지 않고 노동한다”

그가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제대 후였다. 그전에는 “소설을 안 써도 충분히 즐겁게 놀 수 있었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고 그는 슬쩍 농을 친다. 하지만 작가 후기에 적어 놓은 “나는 문인이 아니고 작가다. 나는 예술하지 않고 노동한다”는 그의 말을 읽다보면 소설에 투신하고자 하는 그의 강한 의지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

그는 자칭 ‘프로 작가’이자 ‘소설 전사’다. 휴대전화에도 그렇게 써놓았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소설에 대해 당당하다. ‘소설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는 얼마 전 장편소설 한편을 탈고했다.

“박달대륙의 새무리리라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장편소설입니다. 판타지적인 요소가 강한 작품인데, 스포츠와 섹스를 소재로 해권력 문제를 깊이 다뤄봤습니다.”

스스로 ‘리얼리즘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희대의 문제작’이라고 평하는 이 소설이 우리 소설계를 한층 더 풍요롭게 할 것인지 사뭇 궁금해진다. — 최갑수 기자